

北韓 言論의 性格과 現實 再構成에 關한 研究*

劉 載 天

- I. 서 론
- II.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이론과
초기 북한언론의 성격
- III. 북한 언론의 성격과 구조변화
- IV. 북한 언론의 기본 성격
- V. 북미 회담 보도분석
- VI. 결 론

I. 서 론

북한언론의 성격과 구조는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같은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지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북한 언론의 성격 또는 구조도 전통적인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에서 '주체의 언론'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과정에서 김정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즉,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자격으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딘 김정일이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을 거쳐 선전선동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조형창·리준하, 1982: 189-246) 마침내 1973년 9월 당중앙위 제 5기

* 본 연구는 1994年度 教育部 地域研究支援金으로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7차 전원회의에서 선전선동 겸 조직 담당비서로 발탁되면서, 그때까지 북한의 언론정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던 맑스·레닌 및 김일성의 언론사상과는 색다른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이 구축되었고, 이에 입각하여 북한의 언론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5월 7일에 「우리 당의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金日成·金正日, 1987: 137-159)라는 논문을 통해, 온 사회의 김일성주체화 위업을 위해 새로운 혁명단계의 출판보도강령을 독창적으로 천명하고, 김일성주의 출판보도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했다는 것이다.(리웅필, 1985: 415). 그는 제시한 주체적 출판보도강령의 핵심내용이 "북한의 당출판보도물이 새형의 주체적 보도물로서 그 혁명적 성격을 밝히고 주체적 출판보도물의 기본사명과 임무, 근본원칙, 신문혁명·보도혁명·출판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 등 주체의 혁명적 출판물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영주, 1994: 13,14)

이 글은 이같은 북한 언론의 성격과 구조의 변화를 보기 위해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이론과 그것을 북한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적용한 부분 및 '주체의 언론이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현행 북한 언론의 성격과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주체의 언론'의 핵심개념을 소개하고 실제로 북한 언론이 어떻게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회담 보도를 분석한 것이다.

II.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이론과 초기 북한언론의 성격

북한 언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

론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북한의 언론도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주장하는 바 북한의 언론은 주체의 언론으로서 김일성에 의해 새롭게 창안된 언론이라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것이 지니는 일반적인 공산주의 언론 개념과의 차이를 검토해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이며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라고 갈파한 레닌의 말 속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레닌, 1927:114) 또한 레닌은 일찌기 그가 주도하여 발행했던 <이스크라>의 발간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신문의 사명을 밝혔다.

신문은 주로 선전과 선동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정치와 당의 문제에 관한 선전은 노동 계급 속에 광범위하게 침투되도록 해야 하고 또 노동자의 불만, 노동자의 파업, 무산 계급의 투쟁 등에 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며 이들 사실로부터 명백한 결론을 발견해야 한다. (Markham, 1967:50)

레닌의 이상과 같은 신문에 대한 개념은 '당과 소비에트신문'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열렸던 제 8차 공산당 대회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즉 이 당대회에서 "신문의 가치는 강력한 선전의 무기라는 점뿐만 아니라 조직과 선동의 도구"라는 데 있다고 결정했다. (Markham, 1967:68)

이같은 일련의 어록 속에 담겨 있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신문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은 정치사회화의 도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문의 개념에 견주어 볼 때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은 ①인민을 교육하고, ②당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며, ③인민을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동원하고, ④비평과 자아 비판을 자극하며, ⑤전쟁 상인들의 음모

를 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한 언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 어록이나 또는 북한의 각종 출판물에 나타나 있는 언론에 관한 관점들에 잘 밝혀져 있다고 하겠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7일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당보를 창간한데 대하여’라는 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이 창건된 것만큼 우리는 당의 기관지인 당보를 빨리 발간하여야 하겠습니까. 당보는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옳게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광범히 선전하는 위력한 선전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그 관철에 불려일으키는 믿음직한 조직자입니다. 당보를 발간하여야 당원들과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당의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당보의 이름은 <정로>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우리 당이 인민대중에게 올바른 로선을 가르쳐 주고 그 길로 대중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당보의 이름을 <정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김일성전집, 1988:290,291)

또한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의 하나인 <신문리론>에 의하면 “북한 신문은 구체적으로 선전선동자적기능, 조직자적기능, 그리고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순재, 리두림, 1967:45)

이러한 관점들은 언론에 대한 기본 인식을 언급한 북한의 여러 문건들 가운데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언론을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혁명적 출판물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체의 언론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언론에 대한 개념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은 선전선동자이고 조직자이며 문화교양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언론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전과 선동자로서의 언론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고 있다.

선전일반을 놓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과 학설, 정치적견해 등을 구두 또는 출판물, 라디오 등 각종수단을 통하여 알려주며 해설하고 교양하는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전은 사람들을 맑스-레닌주의원리와 우리당의 정책으로 교양하는것을 말한다. 선동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담화나 보고 또는 연설같은것을 통하여 그리고 신문, 소책자, 배라와 격문, 라디오, 영화 같은것으로 군중에게 사상적영향을 주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이상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군중의 기세를 돋우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으로 직접발동시키는것을 의미한다. (배순재, 리두림, 1967:25,26)

한편 조직자로서 언론의 개념은,

신문이 담당하고있는 사명은 한갓 정치적선전이나 선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혁명과업수행으로 그들을 직접 이끌어들이며 끝까지 관찰하는것으로,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한데 단합시키고 그들의 력량을 조직동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신문의 조직자적기능이 있다. (배순재, 리두림, 1967:31-34)

는 것이다.

끝으로 언론의 문화교양자적 개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하에 있는 신문은 그 의 문화교양자적 기능이 근로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의 보급이나 그들의 정치의식수준제고, 그리고 정치적동맹자의 흡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교양 그리고 풍부한 문

화적 소양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근로자들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배순재, 리두림, 1967 : 36)

는 요청과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여러방면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문자 그대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여 노나먹는 사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적 부도 정신적 부도 모든것이 다 풍부하여야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판물(필자주-언론)을 통하여 대중을 높은 공산주의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문화수준이 높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16:235)

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공산주의 도덕품성 또는 문화수준이 높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란 간단히 말해서 김일성 유일사상을 철저히 내면화한 이른바 주체의 인간을 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문화교양자적 기능은 레닌의 언론기능을 가장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배순재, 리두림, 1967:22,36)

이렇게 언론을 철저한 '정치 사회화의 도구'로 파악하면서 언론에 대해 사상성, 당성, 계급성, 인민성, 및 대중성을 뚜렷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복한 언론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정치사전>에 규정하고 있는 그같은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

리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에 만족하여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빨리 높아질수록 사상혁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신년사, 1973:13)

이같은 김일성의 교시에 대해 <정치사전>은 아래와 같은 설명을 달고 있다.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이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계급적내용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시기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사상으로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풀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정치사전, 1973:522,523)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이같은 사상혁명의 도구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일성은 당과 관련하여 “당은 사회발전법칙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원들에게 주체적인 투쟁과업을 줍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 선집 6, 1965:514) 이와 관련하여,

당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지하고 그것을 빠짐없이 구현하며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당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둘째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당 정책을 계획에 정확히 반영하며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째로 당위원회의 령도에 철저히 의지하여야 한다.(정치사전, 1973:186,187)

고 풀이하고 있다. 언론도 철저히 그러한 당 사업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계급성에 대해 김일성은 “로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임을 강조했다. (김일성 저작선집 3: 249,250) <정치사전>은 이에 대해,

로동 계급은 물질적생산의 기본력량이며 사람에 의해 사람의 착취와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압박을 완전히 없애고 지구상에 인류의 최고 이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역사적사명으로 한다.....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은 자기자체를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혁명화할 수 없으며 혁명투쟁의 옳은 전략과 전술을 가질 수 없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정치적수령과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서만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할 수 있으며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다할 수 있다.....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며 그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사전, 1973:318,319)

고 풀이하고 있다. 그들의 신문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계급적 성격을 신문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모든 사회적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에서는 신문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였으며 또 하고있다.....로동계급을 선도로 하는 조선인민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국제로동운동의

위업에 성실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신문들의 계급성이 있다. 당은 계급의 전위대이며 뇌수이다. 그러므로 신문이 계급성을 띤다는 것은 곧 당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순재, 리두림, 1967:42,43)

고 했다.

한편 “인민성의 원칙이란 우리신문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전당의 조직적의사인 당정책을 인민 대중의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한다는것을 의미하고, 대중성의 원칙이란 신문사업에 광범위한 대중을 인입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연단으로 만든다.”(배순재, 리두림, 1967:47-49)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특히 여기서 유의할 것은 대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북한 언론은 형식과 내용을 인민들의 기호와 수준과 요구에 맞게 만들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여 출판물들을 인민 대중이 읽고 알 수 있는 통속적인 출판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김일성저작집, 10:297)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북한에서 말하는 출판물이란 우리의 경우 매스 미디어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신문, 잡지, 단행본과 같은 인쇄매체는 물론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등도 모두 포함해서 출판물이라 부르고 있다.

III. 북한 언론의 성격과 구조변화

북한은 언론이라는 용어 대신 ‘출판보도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들의 ‘출판보도물’에 대한 기본 인식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이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언론에 대한 성격부여는 시대적 요구, 즉 김일성의 지도이념의 변천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특히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던 시기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념을 정립하는 과정에 따라 언론의 성격도 달리 부여되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언론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서 북한에서의 이념적 전환의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분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념 전환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 참고될 만하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주체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됨.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최초로 주체의 필요성을 공식 선포.

-----1970년 11월, 조선 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개정 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주체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내세움.

-----1972년 12월 27일, 개정헌법 제4조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제외.

-----1980년 10월 13일, 조선노동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완전히 독립함.(이상우, 1988:20)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북한은 대체로 1970년대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김일성 주체사상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언론의 기본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이념적 전환이 북한언론의 성격과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것이 <표1>과 <표2>이다. 이를 위해 배순재, 리두림이 1967년에 펴낸 「신문리론」과 조형창, 리준하의 「신문학」(1982) 및 엄기영의 「신문학개론」(1989)을 자료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서 배순재, 리두림의 「신문리론」은 뒤의 두 책이 출판되기 이전까지 북한내의 유일한 신문 이론 저술이었으며,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표1>과 <표2>에 나타난 북한언론의 성격과 구조 가운데서 몇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속성인 '정론성'과 관련하여 「신문리론」에서는 '정치적 분석과 일반화'의 기준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문학」이나 「신문학개론」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언론의 당성과 계급성·인민성과 대중성·진실성과 투쟁성을 「신문리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언론의 일반적 원칙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신문학」은 노동계급의 당적 언론을 특징짓는 주요한 성질로, 「신문학개론」은 북한언론의 사회계급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진실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서 나타나며, 전투성은 새 것을 열렬히 옹호지지하며 온갖 반당적·적대적 경향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표현된다" (조형창·리준하, 1982:13; 김원태, 1991: 156)고 언급한 「신문학」과 「신문학개론」은 「신문리론」과는 달리 진실성의 판단기준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인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투성과 긍정적 문화교양을 연관시켜 설명하지도 않음으로써, 레닌 및 김일성의 언론사상이 뒤섞여 표현된 '진실성과 전투성 개념'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있다는 점. (김영주, 1994: 29)

넷째, 「신문리론」에서 레닌의 언론기능을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개념으로 주장되던 '문화교양자적 기능'이 「신문학」이

나 「신문학개론」에서 삭제된 점.

다섯째, 「신문리론」의 경우 중요한 대목마다 「마르크스·엔겔스전집」, 「레닌선집」, 「김일성선집」 등을 인용하였으나, 「신문학」이나 「신문학개론」은 「김일성저작집」이나 「김정일지적사항」만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신문활동의 근본원칙들을 설명함에 있어 「신문학」의 경우 김일성의 교시만을 고딕체로 인용하고 있는데 비해 「신문학개론」에서는 김정일의 지적사항만을 고딕체로 가끔 인용하고 있다는 점. (김영주, 1994:33)

인론의 기본개념 대비

<표1>

항	목	신문 리론 (1967)	신문학 (1982)	신문학개론 (1989)
2. 본질적인 속성 (1) 보도성 (2) 정론성	신문의 본질과 기본 속성 1. 신문의 본질	“근로자들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교양의 강력한 수단”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 가운데서도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무기”	‘예리하고 외명한 사상적 무기’로 보면서 ①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정치사업의 무기 ②사상정치적 선전수단 등으로 보았으며, 특히 ①번과 ②번의 경우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본질.	“노동계급의 당적 신문은 사회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라는 것. 다시 말하여 그것이 선진 사상의 옹호자이며 전파자이며 사회여론의 개조자이며 따라서 인간개조, 사상개조와 사회개조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라는 것”
		실재성, 시사성, 시기성, 계기성, 정확성, 신속성 “신문의 모든 글에서 선명하게 표현되는 정치적 지향성이며, 소여 사실과 사건·현상의 본질을 당과 계급적 입장에서 예리하게 천명하는 데서 발차적 분석과 일반화.” “객관적 현실의 사건과 사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면별로 분류하여 당적 입장에서 고찰한 데 기초하여 그가 속한 전체 부문에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정치적 분석과 일반화”는 그 기준 되는 것이 맑스-레닌주의적 유물론적 세계관과 나라의 혁명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이에 더 나아가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노선”	‘오늘의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분석일반화하며 실천을 열렬히 호소하는 신문의 성격’ 정치성과 논증성, 열정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소식성, 시사성, 신속정확성 ‘초미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논하며 그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천명하고 대중을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신문의 기본 속성’ ‘하위개념으로 정치사상성과 혁명적 열정을 제시’ ‘정치사상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실·사건 가운데서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사회정치적 의의가 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소개하는 데서 보장되는 동시에 모든 문제와 사실·사건을 언제나 정치적으로써 리하게 분석평가하고 논증함으로써 보장된다”

항 목	신문 리론 (1967)	신문학 (1982)	신문학개론 (1989)
3. 당적 신문의 주요성질 (1) 당성과 계급성	'맑스-레닌주의 신문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일반적 원칙'에서 어느 곳에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언급하지 않고, "계급적 원리들의 파괴의 비타협성과 온갖 부르조아 사상 간제와 날카로운 투쟁 그리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의 옹호, 반맑스주의 사상 조류와의 무자비한 투쟁에서 발현된다."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반적 특성" 로동계급을 신두로 하는 조선인민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국제로동운동의 위업에 성실하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신문들의 계급성이 있다. 맑은 계급의 전위대이며 보수이다. 그러므로 신문의 계급성을 떠나는 것은 곧 당성을 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성과 계급성·인민성과 대중성·진실성과 전투성을 '로동계급의 당적 신문'을 특징짓는 주요한 성질. 공산주의적 당성을 '당적 신문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며 당적 신문의 생명'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수령이 제시한 당정책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신문의 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되게 하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이론, 방침을 철저히 옹호 관찰 뿐만 아니라 그와 어긋나는 온갖 비당적·적대적 경향에 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나타난다' "당적 신문의 계급적 본성으로서의 로동계급성이, 로동계급의 근본 이익을 견결히 옹호 관찰하고 그의 지향과 의사를 철저히 대변하는 데서 표현되며, 또한 비로동계급적 요소나 경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데서 표현된다"	'신문의 사회계급적 성격' 이하 '신문학'과 같은

항	목	신문 리론 (1967)	신문학 (1982)	신문학개론 (1989)
(2) 인민성과 대중성		"인민성의 원칙이란 우리 신문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고있는 전당의 조직적의사인 당정책을 인민대중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 "대중성의 원칙이란 신문사업에 광범위한 대중을 인입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인단으로 만 든다"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들의 창조적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혁명정신'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며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으로 만드는 데서 표현되며, 대중성은 신문보도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는 데서, 즉 노동통신원들과 열성필자들을 그리고 광범한 독자들이 참가하는 데서 표현된다"	신문학개론 (1989)
(3) 진실성과 전투성		"진실성이란 객관적 현실을 가장 과학적이고도 진실하게 반영하는 일 반적 본성을 의미하며, 전투성이란 계급적 원수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아악하게 관철시키는 데서 오는 본성을 말한다" "북한 신문에서 진실성을 채원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객관적 현실을 진실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식하는 세계관인 혁명적 마스-레닌주의다" 여타 동산주의 신문에서는 전투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비판과 자기비판' 기능을 사용하지만, 북한 신문은 김일성이 새롭게 창조한 '군정적 방법을 통한 감화교양'에 의해 전투성을 높이고 있다	"진실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서 나타나며, 전투성은 새것을 열렬히 옹호지지하며 온갖 반당적·적대적 정향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표현된다"	『신문학』과 같은

<표 2>

항	목	신문 이론 (1967)	신문학 (1982)	신문학개론 (1989)
1. 신문의 기능과 사명 1. 신문의 기능		해난의 신문기능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선진진보 독자적 기능, 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 등 3가지로 제시하였다.	①시대의 선진 사상을 열렬히 옹호 선전하는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역할', ②인민대중의 참다운 지향과 의사를 진실하게 대변하고 적극 고무하는 '진정한 여론의 조직자로서의 역할', 모든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나아가서 주체사상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해 사회의 모든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개조하는 적극적인 '사상교양자의 역할'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투쟁에로 광범한 근로인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조직동원자의 역할'을 기술	신문의 일반적 기능으로 ① 시대 선구자, ②진정한 여론의 조직자로서의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상적 무기'인 당적 신문, ③문화교양자적 역할, ④대중동원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 ⑤대적투쟁 역할, ⑥대의선전과 외교의 수단으로서의 역할 등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첫째,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으며 둘째, 정권을 잡기 전에는 혁명대오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 변화하는 데 이바지하며 셋째, 사회를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으로 일체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넷째, 사회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
2. 신문의 사명				

항 목	신문 리론(1967)	신문학 (1982)	신문학개론(1989)
3. 신문의 임무			①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드는 데 이바지 하고, ②사회를 주체의 사상과 의도 대로, 공산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③세 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해야하 며, ④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4가지를 제시

* 자료 : 김영주, 북한 신문학연구의 어제와 오늘,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 : 한울, 1994. pp.15-36을 참조한 것임

IV. 북한 언론의 기본 성격

가. 주체의 언론, 김일성주의 혁명의 언론

출판보도 사업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방침을 보면 오늘의 북한 언론의 기본 성격을 ‘주체의 출판 보도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전의 북한 언론과의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노동당이 부여한 이같은 북한 언론의 근본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 보도 사업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방침을 해설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다.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이하 ‘당의 방침해설’로 씀>, 1985:5) 이 정의에 의하면 북한 언론의 근본적 성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체’의 언론이요, 나머지 하나는 ‘김일성주의 혁명’의 언론이다. 이에 대해 당의 방침해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첫째,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다. 이것은 우리당 출판물이 지난 역사적시대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출판보도물이며 주체시대 출판보도물이 지녀야 할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는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방침해설, 1985:6)고 했다. 즉 북한의 언론은 철두철미하게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의 북한 언론은 과거의 언론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혁명적 출판보도물이다. 이것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김일성주의

를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김일성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출판보도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방침 해설, 1985:6)고 했다. 바로 이 점에 북한 언론의 지도이념이 무엇인가는 물론 사명이 밝혀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왜 북한의 언론은 주체의 언론이며 김일성주의 혁명적 언론이 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시여 새롭게 창간하신 혁명적출판보도물이기 때문이다.” (당의 방침 해설, 1985:6,7) 그 근거를 보면 언론이 어떠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누구에 의해 창간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성격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표징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 까닭은 누구에 의해 출판 보도물이 창간되었는가에 따라 그 면모와 본질적 특성이 규정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시대를 대표하는 선진사상의 옹호자, 전파자, 관철자로서 시대와 혁명의 발전에 복무하는 것이므로 시대가 달라지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상이 창시되면 그것을 옹호하고 전파하며 관철할 새로운 언론이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 의해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혁명적 출판물은 력사발전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언론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간되었다.” (당의 방침해설, 1985:7) 이같은 성격의 북한언론은 이른바 ‘수령님’께서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수령님’께서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숭고한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를 위해 북한 언론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언론의 기본적 성격은 전제주의 왕권시대의 언론이 존재했던 양상과 동일하다. 즉 전제주의 체제에서 진리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제왕이며, 그는 무엇이 진리이며 진리가 아닌가를 가려 줄 뿐만 아니라 언론은 그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만을 옹호하고 전파할 수 있을 뿐이었다. 북한의 언론은 김일성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전제주의 체제의 언론과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김일성은 바로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나. 북한 언론이 지켜야 할 근본원칙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북한 언론의 근본적 성격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출판 보도물이 지켜야만 할 근본 원칙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의 원칙이다. 즉 북한의 언론은 주체의 원칙을 자기 활동의 근본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활동이 주체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관통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주체 사상과 그 구현인 주체적 출판보도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언론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며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역사적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당의 방침해설, 1985:22)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체의 원칙은 “우리 당 출판보도물을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일색화하고 출판보도활동에서 김일성주의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대중교양과 발동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출판보도물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23)는 것이다.

둘째,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진행하는 원칙이다. 이것은 “모

든 출판보도활동에서 당중앙의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며 출판보도일군들이 당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고 당의 의도와 당이 내놓는 방침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한마디로 말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지도밑에 모든 출판 보도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25)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원칙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북한 언론은 철저하게 당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언론을 통한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양면성의 의도는 왜 북한언론이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의 제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즉 이 원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출판보도사업을 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충성도 ‘대를 이어’우러러 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당의 방침해설, 1985:27,28)

그러면 출판보도활동을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 밑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우선 모든 출판보도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로동신문>을 당의 지시대로만 편집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으며, “다른 곳의 말을 듣고 당보를 편집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당의 방침 해설, 1985:28) <로동신문>은 조선 노동당의 기관지이며, 따라서 모든 북한 언론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력한 당의 통제력 아래에 장악해 두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신문들이 이를 따라 제작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 하겠다.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는 원칙이다. 이 원

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 “종자를 바로 켜다는 것은 모든 사업에서 기본책을 틀어잡는다는 것을 말하며 속도전을 벌인다는것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최대한기간내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다는것을 말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30) 여기서 말하는 종자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사와 편집물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력, 즉 기사와 편집물의 내용적 요소를 이루는 주제와 사상, 소재를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상적 알맹이’인 것이다. 이 ‘사상적 알맹이’는 바로 주제 사상, 김일성주의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겠다. 이 원칙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요구를 글에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수 있게 하며.....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 요구를 글에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할수 있게 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32)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수령’의 교시와 ‘지도자 동지’의 지시, 그리고 그것의 구현인 당의 노선과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체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사상,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종자를 켜 다음에는 “무조건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출판보도일꾼들이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높은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함께 출판보도일꾼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조직 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 주체언론으로서 각 매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주체의 언론으로서 또한 김일성주의의 혁명적 언론으로서 그 궁극

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갖추어야만 할 조건에 대해 노동당은 확고한 지침을 정해 두고 있다. 이를 매체별로 정리 요약해 보기로 한다.

(1) 신 문

당은 신문 조도 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신문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신문을 '우리식대로' 만들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교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본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사업에 편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방침 해설, 1985:81)

그러면 왜 신문을 '우리식대로' 만들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의 신문이 새형의 주체의 신문,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신문이기 때문이다." (당의 방침해설, 1985:82) 이것은 신문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당의 방침해설, 1985:83)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신문이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당의 방침해설, 1985:83) 이러한 이유를 전제로 하고, 과연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식대로'라는 형식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해 네 가지 지침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네 가지 지침은 북한 신문의 제작에 있어 견지해야만 할 기본자세일 것이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인 출판보도사상과 방침, 신문보도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84) 이같은 요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이 엄격하게 김일성사상의 구현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신문기사를 우리혁명의 리익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기자들은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을 우리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하고 보도사업을 능동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당의 방침해설, 1985:85) 이를 위해 기자들은 높은 정책적 안목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 지침은 우리에게 북한 언론의 뉴스의 개념이 우리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언론이론에 의하면,

뉴스는 조직된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건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뉴스라고 할 수 없다.....뉴스는 이렇고 이런 사실이나 사건을 그대로 보도하는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규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뉴스는 사실을 통한 선동이다..... 뉴스는 교훈적이어야 하고 계몽적이어야 한다.(Kruglak, 1962: 78-80)

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공산주의 언론이론의 뉴스에 대한 개념으로 하여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인들은 뉴스가 '올바른(올바른)' 사상의 형성과 정치질서에 있어 보다 강력한 신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부여해 왔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당의 선전 주체나 슬로건 혹은 당의 정책캠페인에 뉴스가치 판단의 우선순위를 둔다. 간단히 말해서 공중이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판단에 의해 공중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뉴스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교화나 혁명과업 수행과 무관하거나 또는 그것을 방해하는 뉴스들, 예컨대 범

죄 사건, 사고, 재해, 관광, 사고,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뉴스의 게재는 배제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소련이나 중국 또는 동구 공산국가들에서 그같은 도식적 뉴스관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도 공산주의 혁명 초기의 뉴스 개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신문>을 비롯한 모든 북한신문에서 뉴스는 김일성의 교시를 해석한 것이나 혹은 당의 정책을 교양시키기 위한 것, 또는 공산주의사회 건설과정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연관된 사안들이 주된 항목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북한신문의 뉴스는 객관적 사실의 보도에 우선하여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의 개진이 되는 셈이다.

셋째, “신문편집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사상감정에 맞게 우리식대로 하여야 한다.”(당의 방침 해설, 1985:86)는 것이다. 신문의 편집을 우리식대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신문편집은 곧 정치이며 작전이라는 관점 때문이다. 즉 신문에 나가는 모든 것은 곧 정치의 반영이며 정책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집을 우리식대로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므로 신문편집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남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식대로 지면을 꾸려야 한다.....신문편집에서 모방은 곧 죽음이다.....그러므로 신문편집일군들은 다른 나라의 신문편집 형식이나 방법, 기성관례나 낡은 재래식물에 포로되지 말고 우리 인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호, 우리의 실정에 맞는 편집형식과 방법을 적극 찾아내며 그것을 편집실천에 널리 활용하여야 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87)

고 했다. 이같은 요구는 한마디로 신문 편집에 있어 김일성 유일사상의 신봉과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및 남조선혁명 등을 강조하는 지면구성을 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북한 언론의 뉴스에 대한 기본관점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국제문제 취급에서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87)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추진하는 혁명과 세계혁명을 다그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지침에 따라야 한다. 즉 그 하나는 국제 보도자료를 옮겨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는 ‘특보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추진하는 혁명--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과 세계혁명을 다그치는 데 별로 의의가 없는 것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독자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뉴스에 대한 가치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김일성주의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신문에 대한 요구와 신문이 갖추어야만 할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구현하는 모범으로서 당보인 <로동신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당보를 다른 신문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잘 만들어 모든 신문들이 그것을 따라배우게 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보 <로동신문>을 신문의 전형으로, 본보기로 만들고 그 모범을 다른 신문들에 일반화하여 북한의 모든 신문들을 철두철미 당적이고 노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신문으로, 그리고 김일성주의 출판보도물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방침해설, 1985:74)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두 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당보 <로동신문>이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중앙위원회 기관지이기 때문이며, 나머지 하나는 당보를 전형으로 내세워 출판보도사업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당의 방침해설, 1985:75,76) 다시 말

해 <로동신문>은 당의 얼굴이며 당의 대변자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로동신문>을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계적인 신문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그와 같아야 할 절실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세 가지를 강조한다. (당의 방침해설, 1985:77-81) 첫째, “당보에 실리는 모든 기사를 품위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 까닭은 당보의 사실은 당의 지령서와 같으므로 당보의 사실을 잘써야 당보가 사상적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글보다도 ‘리론논설’을 깊이 있게 써야 한다는 것, ‘당보론평’을 권위있게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당보를 권위있게 편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문의 질을 기사의 질과 함께 편집의 질에 의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이며, 아무리 기사를 품위 있게 쓰더라도 편집을 잘하지 못하면 신문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품위도 보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보를 권위있게 편집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자료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옳게 반영한 무게있는 ‘사론설’들을 많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수시로 제기되는 남조선 및 국제정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천명한 무게있는 논평들과 대중의 이목을 끌고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새 소식들을 담은 다양한 종류의 기사와 편집물들을 많이 내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것은 당보의 권위와 품위를 떨굴 수 있는 일체 자료들은 당보에 내지 않는 것”이라 한다. 셋째, “모든 출판보도기관들에서 당보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들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말하는 편집이란 다만 지면배정이나 지면구성을 뜨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제작 전반의 기획, 기획기사의 취급까지를 포함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방 송

앞에서 본 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송 또한 주체의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방송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방송사업을 우리식대로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방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당의 방침해설, 1985:118)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 방송을 ‘우리식대로’한다는 것은 “방송사업을 당의 의도와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진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방송을 철저히 당에서 세워준 방침과 원칙, 기준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방송내용과 형식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살려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방침해설, 1985:118, 119)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당의 방침해설, 1985:119-121) 첫째, 그것은 북한 방송의 성격, 사명과 관련된다. 즉 “우리 방송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목소리이며 주체조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방송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강력한 무기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방송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 회의를 계기로 방송사업에 남아 있던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뿌리뽑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혁명적 조치들은 취한다는 것이다. 셋째,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방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방송을 ‘우리식대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당은 세 가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당의 방침해설, 1985:121-126)

첫째, “방송내용에서 우리식의 특질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방송내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까?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내용을 교시하고 있다.

- ① 방송내용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옹계 살리자면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② 방송내용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살리자면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당과 불패의 통일 단결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③ 방송내용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살리자면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 ④ 방송내용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 세계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도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둘째, “방송형식에서 우리식의 특질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음악, 무용을 비호사 문예물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 우리 방송은 자본주의나라 방송처럼 상품광고나 많이 하고 인기를 끌기위하여 보도경쟁이나 하는 흥미본위주의적인 방송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선전수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방송에서는 ‘호소성이 높고 감화력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적인 음악을 많이 방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셋째, “방송부문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말할 것도 없이 “방송일군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정연하게 세워진 원칙과 준칙, 기준에 맞게 방송사업을 진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방송매체의 성격규정과 그에 따라 방송이 갖추어야만 할 조건들을 살펴볼 때 북한 방송은 김일성 유일 체제를 위한 강력한

선전도구이며, 따라서 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방송 또한 신문과 마찬가지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위력한 선전도구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3) 통 신

신문이나 방송과 마찬가지로 통신 역시 주체를 튼튼히 세울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통신이 우리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자면 통신보도활동은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여야 하며 보도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당의 방침해설, 1985:104)

이와같이 통신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할 까닭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당의 방침해설, 1985:104-106)

첫째, “우리 통신의 주체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기 때문이다.” 즉 통신은 그것 자체가 이미 주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이다. 그 까닭은 “우리의 통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 통신보도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삼고있는 혁명적통신”이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신이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은 사명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즉 통신의 기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내외정세를 조선혁명의 리익의 견지에 서 예리하게 주시하고 신속히 입수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제때에 보고드린다.”는 것.

② “국내외의 새로운 사실과 당의 입장을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어 광범한 대중이 당의 입장과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할수 있게”만드는 일.

③ “국내외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을 제때에 대변하여 세계여론을 옳게 선도하고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끊임없이 늘리는” 일.

④ “특히 원수들의 악랄한 모략책동과 반동적공세에 대한 선제타격, 충격선전, 역공세를 연속적으로 돌이대여 놈들의 움푹한 기도와 추악한 정체를 세계 혁명적인민들 앞에 날날이 발가놓을수 있고 적들을 고립약화시키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는” 일.

이상과 같은 선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통신보도사업은 적어도 세 가지 임무를 다해야만 한다.(당의 방침해설, 1985:106-111)

첫째, “통신보도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 특히 통신보도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고”, “또한 매시기 제시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소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 당정책을 다 환하게 통달하여야 하며”, 나아가 “통신보도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해 나가는 강철같은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통신보도사업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선전을 첫째가는 임무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이론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품모와 업적의 위대성을 선전하는데 모든 통신보도 역량과 수단을 집중시키는것이다.” 이같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소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통신보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통신을 내보내는 것인 바, 이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많이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신문, 방송, 통신 등 매체에 대한 당의 요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언론은 궁극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을 국내외에 교양하며, 김일성 유일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서는 도구의 구실을 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북한의 언론인은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김일성 유일사상과 유일체제의 구현을 위해 북한 언론은 당의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

넷째, 북한언론은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 봉사해야만 한다.

다섯째, 북한언론은 최고의 지도이념이나 지침으로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에 절대 복종해야만 한다.

여섯째, 북한언론은 김일성주의의 혁명을 세계에 수출하는 선전도구이다. 특히 남조선 혁명을 부추기는 구실을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모든 매체는 세계에서 유일한 획일적 목표에 봉사하는 교조적 언론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우리식대로’ 언론활동을 편다는 것은 곧 김일성 유일사상과 유일체제만을 선전하고 요양하며, 그것을 위한 조직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V. 북미회담 보도 분석

가. 내용분석방법

(1) 분석대상의 선정

(가)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될 사건은 '북미회담'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생존전략에 기반을 둔 회담으로 북한의 국가정책 및 당 노선을 첨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단, 내용상 단순한 핵문제나 상대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 등 북미회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분석신문의 선정

본 연구는 북미회담이라는 특정 이슈를 규정짓는 북한언론에 대한 주장과 논조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중앙일간지로서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선정하였다. 특히 '로동신문'만을 분석함으로써 인해 파생되는 단선적인 해석을 피하고 '로동신문'의 보도성향 등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북미회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국과 미국의 신문논조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 분석대상은 북미회담 당사국의 대표적 신문들인 북한의 '로동신문'과 미국의 'NEWYORK TIMES'를 선정하였으며, 한국신문으로서의 중도지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일보'를 선정하였다.

(2) 분석단위

각 신문별 분석단위는 스트레이트 기사, 사설, 해설, 논설 등 모든 기사 중에서 북미회담 관련 기사만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문장에서 내용상 북미회담 관련 사실보도나 논평에 대해 특정한 경향성을

찾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기사별 분석은 하나의 대주제(헤드라인)안에 실린 내용이라고 출처나 내용이 다르고 소주제가 하나의 대주제 기능을 하는 기사일 경우 이를 각각의 분석단위를 산정하였다.

(3) 분석시기

본 연구의 분석시기는 북미 3단계 1차 회담이 시작된 8월 부터 북미 3단계 2차 회담이 종결된 시점인 10월 까지를 그 분석시기로 잡았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일반적인 기사유형 등은 내용분석(內容分析)을 사용하고 북미회담 관련 각 신문들의 논조나 보도성향은 내용별로 사례를 묶어 분석하였다.

(5) 유목설정 및 분석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 기사유형별 분석

본 조사에서는 '로동신문'의 특수성 때문에 기사 유형별 분류를 기존의 기준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본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하였다.

ㄱ) 스트레이트, 종합뉴스 : 단신기사나 특정한 의견이나 해설을 신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일반 뉴스

ㄴ) 해설, 의견기사 : 특정한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단순 기사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나 신문사 논설위원의 글로 논단, 칼럼, 해설, 초점, 스케치, 기획 기사 등이 포함된다.

ㄷ) 스트레이트 + 의견 : 이슈와 관련된 사람의 인터뷰를 게재하거

나 제 3자의 좌담이나 성명서 등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 ㄹ) 사실 : 특정사건에 대한 신문사의 시각, 견해 및 입장을 담은 것을 말한다. 단, 로동신문의 경우 일반적인 사실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메시지 유형 분석

본 분석에서는 편의상 헤드라인만을 대상으로 메시지 유형의 분석 항목으로 정보성, 가치지향성, 규범성의 3가지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ㄱ) 정보성 : 사실에 입각한 뉴스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단순히 전달하는데에 초점을 둔 내용을 말한다. ex) ..한다
- ㄴ) 가치지향성 : 무엇이 좋고 올바르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체계, 즉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 주의)의 가치체계에 입각해서 평가적 인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한다. ex) ..하고자 한다, ... 하다.
- ㄷ) 규범성 : 특정한 가치에 대한 행동규제까지 하는 것으로서 일탈방지나 보상 또는 벌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의미를 가진 메시지로서 무엇을 하도록, 또는 해야만 한다는 식의 내용을 말한다. ex) ..해야만 한다

나. 분석 결과

(1) 기사유형별 보도현황

각 보도내용을 기사 유형별로 정리하여 살펴본 결과, '로동신문'의 경우 총 105건의 보도 중에서 단신(스트레이트) + 의견 기사가 44건 (41.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유형은 대개 '로동신문'이 자국의 외교인이나 제3국의 친북한 인사들의 친북성 담화, 의견, 성명을 소개하면서 단순한 뉴스형태가 아닌 그들의 친북발언이나 대

남 비방성 주장을 하나의 해설이나 의견기사 형태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은 여타(한국신문, 미국신문) 일반신문에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한편, 단신(스트레이트)이나 종합뉴스의 경우가 42건(40.0)이었으며, 해설도 19건(18.1%)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실의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일보'의 경우 총 87건 중에서 단순기사나 종합뉴스(18건 : 20.7%) 보다는 회담 관련 쟁점이나 추이 등을 다각도로 진단, 분석한 해설 기사가 61건(70.1%)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사실의 경우 7건(8.1%)이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도 총 38건 중에서 해설기사가 27건(71.1%)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실은 7건(18.4), 단신이나 종합뉴스의 경우는 4건(10.5%)로 '로동신문'이나 '한국일보'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게재빈도를 나타냈다.

표) 각 신문의 보도유형별 기사현황

신문 보도유형	로동신문	한국일보	NewYork Times
단신, 종합뉴스	42 (40.0)	18 (20.7)	4 (10.5)
해설, 의견기사	19 (18.1)	61 (70.1)	27 (71.1)
단신 + 의견	44 (41.9)	1 (1.1)	0 (0)
사 설	0 (0)	7 (8.1)	7 (18.4)
계	105 (100)	87 (100)	38 (100)

(2) 보도유형상 특징

1) 외국 언론기관이 인용한 <로동신문>논평, 주장을 주로 게재
 노동신문 기사에서의 단신이나 논평,해설 기사의 상당부분이 노동신문에서 주장하였거나 보도하였던 내용을 외국의 언론(신문, 방송, 통신 등)이 재인용한 사실을 다시 보도함으로써 마치 외국신문이 그 내용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예) -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일본과 남조선을 규탄한 ‘노동신문’의 글을 보도” (8월31일)
 - “여러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우리나라 인민무력부 답변인 대담을 보도” (10월 3일)

2) 신문 자체의 의견 주장보다는 친북 국가나 출처가 모호한 개인, 단체 언론 또는 자국의 외부대변인 등의 취재 보도 내용 중 북한 유리한 내용만을 게재, 마치 전세계에서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식으로 보도

북미회담 관련 ‘로동신문’의 보도성향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특정한 외국의 친북단체나 친북인사들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나 주장을 싣고 이것이 마치 전세계 언론이나 여론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 단체나 인사는 특정인이나 단체로 그 등장 빈도도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 예) - “남조선 당국자들은 매국 역적들이다 - 또고와 모잠비끄 인사들 담화” (9월 16일)
 - “조미합의 성명을 책임적으로 리행할 것을 강조 - 짐바브웨와 모잠비끄 단체가 강조” (9월 21일)
 - “조미회담은 남조선을 불안하게 한다-스웨리에 신문이 글 발표” (9월22일)
 - “국제원자력 기구의 행위를 규탄 - 모잠비끄 단체가 성명” (9월 26일)

3) 북미회담의 주요논쟁점 보다는 회담자체의 의의 강조

북미회담의 세부 일정이나 토의내용, 논쟁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보다는 북미 회담의 합의사항을 지지하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보도가 많았다. 이는 회담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정보제공시 여러가지 자국에 불리한 사실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기사보다는 북미회담 지지 성명이나 주장들을 나열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였다.

예) - "미국은 조미합의 성명을 리행하여야 한다" (8월 30일)

- "조미합의 성명을 지지환영 : 여러나라 신문들이 보도"

(9월 12일)

4) 북미회담의 성사 및 결과 논평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업적 찬양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는 바로 북한당국의 정책표현에 다름아니다. 또한 북한당국의 정책성과나 목표달성은 곧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하에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미회담의 개최나 합의의 결과를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개인적인 역량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과의 친선 모잠비끄 위원회 집행기 류제파네끼소 리싸네는 담화에서.....합의성명 발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받들고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이다." (8월30일)

"제3단계 조미회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생전에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회담이다. 나는 이번 회담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각하께 열렬한 축하와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성명은 조선인민의 김정일 각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나라의 평화와 안전, 자주적 평화통일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9월4일)

5) 메시지 유형에 관한 분석결과 : 가치지향적 성격의 논리가 강조

일반적으로 신문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적 성격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형성케 하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사회가 설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 보상과 처벌의 행동 규제까지 포함하는 규범적 정보를 전달해 주는 메시지 형태를 띠고 있다.¹⁾ 그간 진행된 몇몇 연구에서는 이 중 가치지향성이 가장 높고 정보성과 규범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도, 헤드라인만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와 같이 '북미회담'과 관련한 메시지 유형은 '가치지향성'이 57회(54.3%)로 가장 많이 강조되었으며, 다음으로 정보성이 26회(24.8%), 규범성 22회(20.9) 순이었다.

여기서 '가치지향성'의 사례로는 '민족반역자들과는 누구도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8월 18일), '절도 자꾸하면 아픈법이다'(9월 5일), '반역자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와 패배 뿐이다'(10월 31일)를 들 수 있으며, '정보성'은 '여러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조미전문가급 협상들이 진행된 소식을 보도'(9월 22일), '북조선 특별사찰 거부'(9월 30일) 등이다. 한편 '규범성'의 사례로는 '불순세력들은 조미회담의 진전에 빗장을 지르려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8월 6일),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10월 12일), '징벌의 몽둥이를 안겨야 한다.(10월 20일) 등이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로동신문'의 경우 북미회담을 다룸에 있어 일련의 공통된 가치를 규정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북한인민들에게 내면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 핵문제를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 의지에 의해 전세계 평화를 위해 협상하고 있는 존재로 부각시키고 남한은 이를 방해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시기 유형	합의이전	합의 이후	계
정 보 성	18 (28.1)	8 (19.5)	26 (24.8)
가치지향성	27 (42.2)	30 (73.2)	57 (54.3)
규 범 성	19 (29.7)	3 (7.3)	22 (20.8)
계	64 (100)	41 (100)	105 (100)

☞ 합의 이전과 이후 기준은 북미회담이 타결된 10월 17일 기준

한편, 10월 17일 북미회담 타결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합의전의 메시지 유형은 ‘가치지향성’ 27건(42.2%), ‘규범성’ 19건(29.7), ‘정보성’ 18건(28.1%)의 순이었고, 합의 후의 메시지 유형은 ‘가치지향성’ 30건(73.2%), ‘정보성’ 8건(19.5%), ‘규범성’ 3건(7.3%)의 순이었다.

이처럼, 북미회담 합의 이전에는 규범적 성격의 헤드라인이 정보성 성격의 헤드라인에 비해 1회 차이지만 다소 비중이 높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합의 이전에는 정보제공 보다는 당위성의 확보를 위해 일방적 성격의 문장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튼 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신문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정보적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기 보다는 여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신문처럼 <무엇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등 가치지향적 차원 보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북한신문에서는 언제, 어디서라는 개념은 단지 부차적인 것이며, 북한당국이 설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합목적적인 내용만이 선정되어 기사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내용별 보도성향 : 논쟁사안을 중심으로

1) 경수로 지원 보도시 한국형 경수로 지원 관련 보도가 거의 언급 안됨

핵개발 의혹의 뿌리인 흑연감속형 원전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형 전환이 합의되는 시점까지 어떤 경수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형 경수로 제공 가능성을 북한주민들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단지, 9월 22일자 단신에서 15일 꾸바의 프렌싸 라띠나 통신을 인용하며, 베를린에서 진행된 조미전문가급 협상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조선측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의 경수로를 단호히 배격하였다는 보도와 25일자 기사에서 '남조선형의 경수로'라는 것이 있다는데 대하여 아는바 없다는 대표단 단장의 대답을 간략히 전하였다.

2) 핵문제 해결방안 : 연료봉 처리나 경수로도입 자체로 핵의혹이 해결된다는 논조

북미회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보다는 핵무기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면 핵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북한 당국의 논리를 그대로 일관하고 있다.

“경수로 도입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건적 고리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경수로 도입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가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본이 있지도 않은 <과거핵의혹의 해명>을 <경수로 도입지원>의 <전제>로 내세운것이 제3단계 조미회담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서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8월 5일)

“<핵 의혹>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원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

한 불신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자립적인 흑연로 체계를 포기하고 그대신 경수로 체계를 도입할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앞으로 경수로가 제공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조미사이에 불신이 가셔지고 신뢰가 조성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핵 의혹>도 해소되고 과거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이다. 제반사실은 핵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도가 그 무슨 <특별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를 제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9월 24일)

또한, 경수로 도입문제의 주체에 대해서도, 북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경수로 도입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는 진지한 입장으로부터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미국이 동의해 나섬으로써 성립된 문제이다. 경수로가 도입되면 우리에게 대한 핵의혹이 자연스럽게 가셔지게 되고 따라서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일본은 경수로 도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과거 <핵의혹해명>을 들고 나와 시야비야 하는가. 그들의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게 하고 그를 구실로 저들의 핵무장화를 다그치자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9월15일)

반면, ‘한국일보’의 경우에는 사실 등을 통해 북한의 의도가 폐연료봉 처리 등을 통해 외교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핵을 밝힐 수 있는 2개 미신고 핵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은 여전히 거부한 채 오직 연료봉 처리여부를 무기삼아 미국으로부터 경수로, 원자로 경험, 외교 관계 등 모든 것을 최대한 얻으려는 것이다.” (한국일보. 8월5일 사설)

이에 비해, '뉴욕 타임즈'는 경제제재나 핵위협 등의 조치 보다는 핵확산을 막는 길만이 자국(미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개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각나라들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토록 자극한다.....역사적인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핵무기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에게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가 핵위협을 해올 때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식의 적절한 안정보장을 해 주는 것이다.....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8월 16일)

3) '특별사찰'에 대한 부당성 주장

특별사찰은 군사대상을 개방하는 것으로써 이는 자국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의 부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띠고 있다.

“‘특별사찰’의 부당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더우기 조미합의성명이 리행단계에 들어선 오늘 ‘특별사찰’문제를 다시 들고나올 아무런 타당성도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세력들이 경수로 제공이 우리에게 대한 서방나라들의 그 무슨 ‘해택’인 듯이 묘사하면서 ‘특별사찰’문제를 다시 들고나와 기어코 성사시키려고 책동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생억지에 불과하다.” (10월 2일)

“그들이 떠드는 ‘특별사찰’이란 우리의 군사대상을 개방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다.” (8월 6일)

4) 회담주체에 대한 문제 : 핵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며, 피해자는 북한이기 때문에 양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조

‘로동신문’은 회담기간 동안 시종일관 회담주체는 피해자인 북한 자신과 핵문제를 야기시킨 미국이라며 한국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일본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남의 집일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할 처지에 전혀 있지 못하다. 그들은 조미회담의 당사자도 아니고 이번 합의서명과도 하등의 인연이 없다. 그들은 함구무언하고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켜히 남의 일에 끼여들어 방해를 놀려다가 망신만 당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나을 것이다.” (8월 28일)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조성함으로써 산생된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며 우리 공화국은 수십년동안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 해결의 주되는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핵위협을 조성하는 가해자인 미국과 피해자인 우리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9월 29)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발생경위로 보나 그 성격과 본질로 보나 조미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정치 군사적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는 한편, 우리를 고립말살할 목적밑에 ‘핵의혹’을 조성한데서 생긴 문제이다. (10월 29일)

또한 북미회담과 관련한 한국의 대응과 반응을 전쟁과 관련지으며 위협,협박적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10월 19일자 ‘로동신문’의 경우 ‘호전광들은 저들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 다’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유엔

제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온 민족이 핵참화를 들쓰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월 12일자에서는 "김영삼 역도가 외세를 충동질하여 <제재>와 <강경대응>에로 나가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경우도 한국의 보수주의 강경론자들을 비난하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대화하는 길만이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조를 전개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강경론들은 한국에서 냉전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한국은 그들과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강경파들을 달래는 행동을 중단하고 김일성 사후에 북한에 대한 거친 억양의 톤을 낮출 필요가 있다.. 북한의 새지도부와 협의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뉴욕타임즈, 8월 16일)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한국이 배제된 북미회담의 현실에 대해 "우리측이 이번 북미합의에서 아쉬워할만한 대목은 역시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 했다는 사실이다.....그동안 우리측은 남북관계에 있어 당사자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당사자는 물론 남북한이다. 반면, 북한은 우리측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담판을 요구해왔다.....미국은 더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는 식으로 북한과 미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8월 5일자 사설에서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완전 검증받은 뒤 경험과 대외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 만큼 무엇보다 체면치레식 북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핵해결이 선행되도록 미국을 통해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미국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10) 북미합의 후 회담성과에 대한 평가

북미회담에 관한 '로동신문'의 입장은 일관된 논리로 이어져왔다. 즉, 초기에는 "미국은 조미합의 성명 리행에 반드시 자기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9월 15일)는 식의 북미회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회담이 타결된 10월 17일 이후에는 "조미사이의 기본 합의문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10월 29일)이라는 제하의 내용 등 시종일관 합의 이행의 당위성과 성과를 지지하는 논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의 하나인 '뉴욕타임즈'는 이번 북미회담의 성과를 클린턴 정부의 성과로 평가하며 시종일관 정부의 노선을 지지 하였다. 특히 경제적 제재를 거론한 일부 미국의 강경파나 한국의 강경파를 매파(the hawks)로 부르며 그들의 주장에 강한 경고성 논조를 유지하였다.

"북한의 새지도부는 핵개발의 잠정적인 동결을 영원한 동결로 가시화함으로써 비관론자들을 무색케하였다. 이번 성공적인 합의는 북한 새지도부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핵위기의 의식을 확산시키려고 한 미국과 한국인들을 좌절시켰다. 그리고 이는 그런 강경론자들의 의도를 고감히 뿌리치고 외교정책을 추구한 클린턴 정부에게 신뢰감을 가져다 주었다." (뉴욕타임즈, 8월 15일)

또한, 9월 16일자 사설 "Don't feed Seoul's hawks"에서는 "한국 의 강경론자들은 한국에서 냉전이 계속되길 원하고 있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김정일 권력기반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사설에서 "한국정부는 강경론자의 달래기를 그만두고 김일성 사후에 북한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거친 감정의 톤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등 오히려 친북 성향의 논조를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1) 남한의 국민들이 무조건 북미회담을 지지한다는 논조

‘로동신문’은 남한의 국민들이 북미회담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북미회담을 방해하는 현 정권에 대해 강한 불만과 갖고 있다는 식으로 북한주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인민대중은 언제나 현명한 법이다. 조미회담이 일정에 오른 첫 시각부터 남조선 인민들은 그것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 오리라고 확신하고 이에 전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회담개최와 진전에 훼방을 노는 남조선 통치 집단의 온당치 못한 행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거듭 경고하였다. 김영삼 일당이 인민대중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반자주, 반민족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처지가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0월 29일)

12) 남한의 신문과 출판물 등의 논조를 왜곡 및 확대해석

‘로동신문’은 한국신문에 실린 언론이나 일부 단체들의 대정부 비난성 보도나 내용을 이용, 논조를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남조선 출판물들은 김영삼을 가리켜 <거짓말 대통령>, <배신과 변절의 화신>,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8월 18일)

VI. 결 론

북한언론의 성격과 구조는 1945년 8.15 이후 전통적인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이론’에 토대를 두고 정립되었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주체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주체의 언론’으로 변화되었다. ‘주체의 언론’은 언론이론(개념)으로 불

때 '소비에트 공산주의 언론이론'에 뿌리를 둔 것이지만 이를 북한(조선로동당)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창조적으로 적용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언론은 철저하게 조선로동당의 기관지 또는 목소리이므로 이들 언론이 재구성하는 현실은 곧 당과 정부의 지도적 지침의 반영인 동시에 정책의 방향이다. 따라서 북한언론이 재구성하여 보도하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의제(agenda)와 그 추진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북한은 당의 정책과 관련하여 그것에 부응하는 간행물들을 발행하는 관행을 보여왔다. 예를들면 한국전쟁 직후 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되고 붕괴된 경제의 복구에 전력을 쏟은 3개년 인민경제계획수행 기간에 《조선수산》, 《과학과 기술》, 《조선의학》, 《력사과학》과 같은 잡지들이 창간되었으며, 5개년 인민경제계획시기에는 경제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기계공업》, 《금속공업》, 《석탄공업》 등 과학기술분야잡지들이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출판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 부터 주체사상의 착근과 김일성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면서 주체사상과 김일성저작집 등의 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을 물론 어떤 잡지와 출판물 들이 새롭게, 또 여러 종류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 언론의 성격과 구조 변화는 곧 조선로동당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현실적응이므로북한 언론의 성격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의 방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언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대북한정책수립 및 통일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글에서 시도한 북미회담에 대한 보도내

용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언론의 현실재구성은 노동당의 방침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북한의 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1) 1차 문헌

- 강운빈, 1985 <인간개조론>, 사회과학 출판사편, (도서출판, 조국 1989)
- 김경인, (1960년 5월호), '조선 민족 해방투쟁에 있어서 조선광복회의 혁명적인 업적' <근로자>, 174호
- 배순재, 리두림, 1967, <신문리론>, 동경, 재일본 조선언론 출판인협회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1, <력사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철학사전>, (도서출판, 힘, 1988)
- 사회과학 출판사, 1989 <령도예술> (도서출판, 지평)
- 사회과학 출판사, 1973, <정치사전>, 평양, (도서출판, 지양사)
- 전석담, (1959년 10월) '조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당 창건을 위한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하는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력사과학>, 제 5 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음, 1988, <김일성 선집> 3권, 서울, 대동판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3권, 10권, 15권, 16권, 18권, 25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평양

2) 2차 문헌

- 고현욱 외, 1987, <북한사회와 구조의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국토통일원, 1974, <북한의 언론 출판분야사업 총화집> 1949-1970, 서울
- 김영주, 이범수 편, 1991,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나남
- 김영주, 이범수, 1994, <김정일시대 언론이론과 정책>, 한울
- 유재천 외, 1989,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 유재천, 1991.6. <북한의 방송정책에 관한 일 고찰>, 동아연구 제 22집 별책, 서강대학교 동아 연구소
- 유재천, 1992, <북한언론의 실상>, 민족통일협의회
- 이상두, 1979,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서울, 범우사

- 이상우 외, 1988, <북한40년>, 서울, 을유문화사,
추광영 외, 1991,6. <북한언론의 특성에 관한 내용 분석적 연구> 서울
대학교 신문연구소
서대숙, 1985,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번역판),서울, 화다
스칼라피노, 이정식 공저 (한홍구 역),1986, <한국공산주의 운동사>1권
서울, 돌베개
Fred S Siebert, Peterson T. and W.Schramm, 1956,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James W. Markham,1967, *Voices of Red Giants*, Ames,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Theodore E. Kruglak, 1962, *The Two Faces of TASS*, Minneapolis,
Min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V. I. Lenin, 1927, *Collected Works*, Vol 4, New York,International
Publishers

(부록 1)

북미회담 관련 보도(노동신문)

=====

횟수	날 짜	제 목
1	8 2	- 결실있는 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2	4	- 여러나라 신문방송이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 대답 보도
3	6	- 불순세력들은 조미회담의 진전에 빗장을 지르려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7	- 제3단계 조미회담 제네바에서 재개되었다
5	8	- 남조선 당국은 조미회담에 대한 방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6	10	- 제3단계 조미회담 제네바에서 계속 진행
7	12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조미사이에 긍정성과 평등에 기초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8	13	- 제3단계 조미회담 재개소식을 여러나라 신문방송이 보도
9		- 여러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우리나라 외교부대변인 대답을 보도
10		- 핵무기 소유국들의 핵무기 독점이 계속 지속된다면 언제 가도 핵 군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
11	18	- 민족반역자들과는 누구도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19	<조미합의 성명을 지지하여>
12		- 유엔사무총장 성명 발표
13		- 로씨야 외무성 대변인 환영
14		- 로므니아 외무성 환영
15	20	- 워싱턴과 서울의 매파들의 기도를 꺾어 놓았다
	21	<세계는 미국의 차후행동을 주시하고 있다>
16		- 중국의 인민일보가 시사론평 발표
17		- 모잠비크 인사가 담화 발표
18		- 특별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23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합의 성명>
19		- 캄보자 왕국 국왕 조미합의 성명에 언급
20		- 신중히 기대되는 합의성명
21		- 조선의 확고부동한 의지
22		- 니까라과 외무성 성명 발표
23	28	- 어리석은 놀음을 하지말라
24	2	- 바빠맞는 주구의 입방아질
25	5	- 절도 자꾸하면 허리가 아픈 법이다
26	10	- 화근은 제때에 돌려내야 한다
27	13	-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28	15	- 분수없는 행동
29		- 미국은 조미합의 성명 리행에서 반드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6	<남조선 괴뢰들은 조미회담 진전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횟수	날 짜	제 목
30		- 조미합의 성명 리행을 방해하고 해방을 놓는 모든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31		- 남조선 당국자들은 매국 역적들이다 -또고와 모잠비끄 인사들 답화
32	17	- 국제원자력기구 세력이 계속 압력에 매달린다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33	18	- 여러나라 신문이 조미합의 성명을 보도
34	19	- 조미합의 성명 사항들을 리행해야 한다 - 모잠비끄에서 강연회
35	20	- 조미 전문가 현상들이 진행된 소식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보도
36	21	- 조미회담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 출발
37		- 조미합의성명을 책임적으로 리행할 것을 요구
38	22	- 용납못할 도전행위
39		- 조미회담은 남조선을 불안하게 한다 -스웨리에 신문이 글 발표
40		- <청와대>, 창녀촌을 파헤친다(1)-정치매춘부들의 소굴
41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조미전문가급 협상들이 진행된 소식을 보도
42	23	- 조미회담 우리측 대표단 제네바에서 도착성명 발표
43	24	- 청와대, 창녀촌을 파헤친다(2)
44		- 우리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과 합의한 공약들을 무조건 리행할 것을 요구한다
45		- 불순 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46	26	- 미국측은 경수로 보장 담보를 명백히 하고 그리행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47		-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미회담 진전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걷어 치우라 <국제 원자력기구의 행위를 규탄>
48		- 모잠비끄 단체가 성명
49		- 인도정계 인사가 강조
50	27	- 압력에 굴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 '특별사찰'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51	28	- 포함외교는 백해무익하다
52	29	- 분별없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53		- 미국은 조미합의 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54	30	- 미국은 조미합의 성명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55		- 북조선 '특별사찰' 거부
56	10 1	- 여러나라 신문,방송이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 대답을 보도
57	2	- 비렬한 특별사찰 소동을 걷어 치워야 한다
58	3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우리나라 인민무력부 대변인 대답을 보도

횟수	날 짜	제 목
59		- 조미회담을 방해하려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
60	4	- 대화와 군사적 위협은 절대로 랑립될 수 없다
61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 대답을 보도
62	5	- 여러나라 신문,방송이 우리나라 인민무력부 대변인 답화를 보도
63	11	-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64	12	- 화근을 들어내야 한다
65	14	- 조미회담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66	18	- 핵문제 해결의 핵방군은 제거돼야 한다
67	19	- 호전광들은 저들이 지른 불이 타 죽을 것이다
	20	<대화과 군사적 위협은 절대로 랑립될 수 없다>
68		- 미국은 조미회담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69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 대답을 보도
70		- 징벌의 몽둥이를 안겨야 한다
71	21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이 발표되는 것과 관련한 보도
72	22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조미사이의 기본 합의문을 승인
73		- 청와대의 고민, 제네바 합의에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74		- 김영삼 정권의 실정 중에서도 가장 큰실정은 외교정책의 실패이다
75	23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 합의문 발표
76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담보서한 보내어왔다
77		- 가련한 신세가 된 피로들이 미국에 대고 투정질
78	24	- 한국의 대북정책은 총파산에 직면하였다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를 지지하며>
79		-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이 성명 발표
80		- 여러나라 외교부 대변인이 지지
81	25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여온 소식을 여러나라 출판 보도물이 보도
82		-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을 환영
83		- 여러나라들이 조미사이의 합의에 지지를 표시
84		- 남조선 작가가 피로당국의 대미 추종행위를 개탄
85	26	- 캄보자 국왕이 조미사이의 기본 합의문을 지지
86		- 조미사이에 이룩된 기본합의를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보도
87	27	-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를 환영하여 - 네팔의무성이 성명 발표
	28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력사적 문건>
88		- 조국통일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89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조미기본 합의문을 보도
90		-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 보도를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보도
91	29	- 범민족 통일국가가 수립되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횟수	날 짜	제 목
92		- 반자주,반만족 행위는 비싼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조미 기본합의문을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
93	30	- 메히꼬 국회 상원의장이 축하
94		- 자이르 루몽바 민주당 총비서가 담화 발표
95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 여온 소식을 여러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조미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
96	31	- 한국민족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97		- 여러나라 신문이 론평
98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 온 소식을 여러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조미 기본합의문은 조선과 아세아,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 역사적 문건>
99		- 조미 기본합의문을 지지하는 토론회 네팔에서 진행
100		- 인도와 우간다 인사들 담화
101		- 여러나라 신문,통신,방송이 조미사이에 이룩된 기본합의를 보도
102		- 짐바브웨 단체들 공동성명
103		- 부룬디 단체들이 공동성명>
104		- 우리나라 대사들 기자회견
105		- 반역자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와 패배뿐이다

(부록 2)

북미고위급회담 주요일지

일 시		내 용
85	12월 12일	북,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92	1월 30일	북,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93	3월 12일	북, NPT 탈퇴 선언
	5월 11일	유엔안보리, 對북한결의안(제825호)채택
	6월 2일-11일	뉴욕서 제1단계 고위급회담, 북한NPT탈퇴 유보발표
	7월14일-19일	미-북, 제네바서 제2단계 고위급회담
	11월22일-23일	김영삼-클린턴 대통령, 워싱턴서 북한핵 공동보조강화 합의
	12월 19일	미-북, 뉴욕 추가접촉서 핵사찰 수용합의
94	1월 7일	북-IAEA, 사찰협상 시작
	1월 25일	북-IAEA, 협상 결렬
	2월 15일	IAEA, 북한핵사찰 수용발표
	3월 3일	미국, 팀스피리트 중단, 3단계회담 발표
	3월 1일-15일	북한 핵사찰
	3월 31일	유엔안보리, 북한의 추가사찰수락 촉구 의장성명채택
	5월 17일	IAEA, 새 사찰단 북한 도착
	5월 27일	블릭스, 연료봉 협상 실패 안보리 보고
	6월 3일	北美3단계회담취소(영변 5MW급원자로 연료봉 일방교체 강행으로)
	6월 10일	IAEA, 북한 제재결의
	6월 13일	북한, IAEA탈퇴 발표

94	6월15일-18일	○ 카터, 북한 방문 - IAEA 사찰 허용, 잔류 - 흑연감속형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교체 - 北美3단계 고위급회담 개략 합의
	6월 18일	- 김일성 사망, 제네바에서 北美3단계회담 하루만에 중단
	8월 5일-12일	北美3단계 회담 1차 회담
	8월 15일	김영삼대통령, 8.15경축사에서 대체에너지공급 및 한국형경수로 지원 시사
	8월 17일	김영삼/클린턴 전화통화,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되어야만 경수로 지원 가능하다는 합의
	8월 19일	한국정부, 北美3단계 2차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경우 특별사찰 실시 이전이라고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반대 않겠다고 발표
	8월 20일	북 외교부 대변인, 특별사찰을 전제로 한 경수로 원전도입 허용않겠다고 발표
	8월 27일	북한, 중앙통신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 수용거부
	9월 6일	韓 외무 도미, 갈루치 美 차관보와 협의
	9월 10일	北美 전문가회의 평양, 베를린서 동시 개최 - 평양 (94. 9.10-13) - 베를린 (94. 9.10-14)
	9월 15일	갈루치 방한, 한미간 고위정책실무협의
	9월 23일 - 10월 17일	- 北美3단계 2차회의 -17일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에 합의